

# 가슴 따뜻한 빵을 드립니다

김문규 부산광역시지회 북구지부장



‘베푼’은 물질적 여유에서라기보다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 어려운 이웃에게 몇개의 빵이라도 제공한다는 것은 잠시라도 주위를 둘러 볼 수 있는 ‘베푼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제과 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북구지부의 12개 점포들도 이런 ‘베푼의 마음’으로 매달 지역 내 경로당에 빵을 제공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부장 취임 직후 북구 보건소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지역 내의 경로당을 순회하며 치매 예방 등 보건 교육과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협회에서 노인들에게 빵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원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빵 지원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문규 부산광역시지회 북구지부장은 최근 들어 불경기에 따른 매출 저하 등 모두가 힘든 데도 이웃을 돕자는 마음에서 이 사업에 흔쾌히 참여해 준 회원 점포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전한다.

북구지부가 빵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보건소측의 요청도 있었지만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였다. 노인들은 보통 아침 10시에 경로당에 나와 오후 5시까지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점심을 굶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에게 빵이라도 제공하지는 생각에서였다는 설명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경로당 빵 지원 사업에는 북구지부의 임원진 12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북구보건소가 건강 검진 일정과 방문 지역을 사전에 제과협회 북구지부에 통보하면 지부는 다시 보건소측이 빵을 제공할 점포를 알려 주어 그 점포에서 빵을 수거해 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12개 점포는 순번을 정해 빵 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데 보건소측에 한번 방문할 때마다 평균 60~70여개의 빵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남들 하는 대로 남은 빵을 제공할까도 생각했지만 경로당의 노인들이라는 점에서 그날 만든 빵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노인분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자칫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노인들이 좋아하는 단과자류빵을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북구지부 12개 점포들이 당일 제품을 제공한 이유는 이외에도 보건소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빵을 수거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저녁이 아닌 아침 일찍 빵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생산된지 오래된 빵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당 점포는 평소보다 일찍 빵을 만들어야 했지만 뜻 깊은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에서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문규 지부장은 많은 사람, 점포들이 알게 모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자신들의 전개하고 있는 경로당 빵 제공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씩스러워 한다. 사실 김문규의 지부장의 말대로 북구지부 12개 점포가 하는 일이 선행 사례가 많은 업계에선 새삼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빵이 단순히 노인들의 허기를 채우는 차원을 넘어 정성을 담은 마음까지 담겨있다는 점에서 지니는 의미는 결코 작지만은 않은 일이다.

〈글 / 박종선 sunpark@mbakery.co.kr〉

### 부산광역시지회 북구지부 경로당 빵 제공자

- ▲김문규(케익프라자과자점) ▲용민식(드래곤베이커리) ▲신정갑(초이스베이커리) ▲이옥관(하베스트과자점) ▲김영삼(그린베이커리)
- ▲장세준(트윈스베이커리) ▲김윤섭(신라당베이커리)▲손기덕(후레쉬베이커리) ▲문부석(브띠랑쥬베이커리) ▲신영식(신영식베이커리)
- ▲김상동(그린베이커리) ▲양행모(퐁네프베이커리) ▲장상철(케익하우스과자점)